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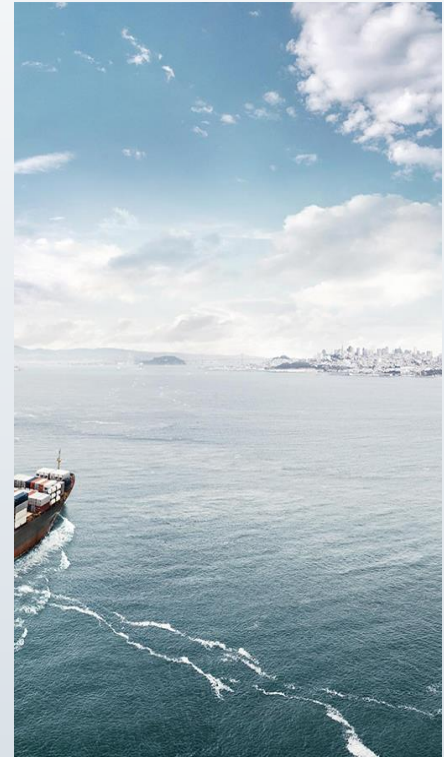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47

Updated May 07,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1 분기 선전한 조선업계, 올해 수주 '총력전' 예고... 노르쉬핑 참가하나

올해 1 분기 예상밖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국내 조선업계에 모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 분기부터 조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더불어 해양플랜트 발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주 경쟁은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 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 분기 매출액은 2 조 1,607 억원, 영업이익 850 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71% 감소한 것이지만 조선 3 사 가운데 유일하게 5 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다.

앞서 1 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의미있는 성적표를 받았다. 당초 적자가 예상됐던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 281 억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했다. 매출액은 3 조 2,685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삼성중공업은 적자폭을 대폭 줄이며 선방했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손실 333 억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145 억원 줄이는 데 성공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1 조 4,575 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 분기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조선 3사는 LNG 선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유가상승으로 해양플랜트 발주가 재개되고 있어 대규모 수주도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조선 3 사 최고경영자(CEO)들은 6 일부터 나흘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박람회(OTC)' 참석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해양플랜트 발주를 염두에 둔 사전 물밑작업을 벌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OTC 는 100 여개국, 2,000 여개의 업체가 참여하는 대형 해양박람회로, 엑손모빌·셰브론·셀 등 대형 오일 메이저사가 참석한다.

지난해 독일 국제 조선해양박람회(SMM)에 경영진이 모두 불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올해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노르시핑(NOR-SHIPPING)'에도 경영진들이 직접 참석해 수주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I . ISSUE & TREND

‘노르시핑’은 그리스와 독일 함부르크에서 각각 열리는 ‘포시도니아’ ‘SMM’과 함께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평가받는다. 포시도니아와 SMM은 짝수 연도에, 노르시핑은 홀수 연도에 각각 개최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가 및 유가 상승과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인해 신규 발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퍼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수주를 더 따내기 위해 경영진들이 직접 현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 정부, 중소조선 회복 앞당긴다 ‘1조 금융추가지원’

정부가 조선업 현장의 활력 회복을 앞당기고 존폐 기로에 선 중소조선사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11월 1조 7,000억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는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달 23일 제 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 총 13개 6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1,000억원, 방산부문 9,000억원을 합치면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 확대에 대비한 중소조선사 역량 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인력양성 64억원, 금융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115억원, 경쟁력 제고 11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선업 위기극복과 친환경 대응을 위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R&D(60억원), LNG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10억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2년 연장

정부는 울산, 목포·영암·해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등 조선소가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 간 연장한다. 또한 조선 수주확대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과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I . ISSUE & TREND

RG 보증 규모도 2 배로 확대돼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소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1,000 억원인 중형선박 RG 보증 규모를 2,000 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제기해 온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와 금융기관의 지원 적극성과 관련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던 2·3 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산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 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선방산업체에 약 9,000 억원의 자금이 집행돼 방산업체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항선 2 척, LNG 추진선박으로 발주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들이 선박시장에서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친환경 역량강화 대책을 확대해 기업들이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LNG 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 척을 LNG 추진선박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중 총 7~8 척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준비해 내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항선은 해상 부유물 수거와 유류오염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청소 선박이다.

아울러 LNG 추진선박 확대에 발맞춰 병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친환경선박법'을 통해 병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 선 개조 등을 통한 병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 년 450 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정부는 중소조선업체의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108 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수요자 연계형 R&D(60 억원), 신시장 개척을 돕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ODA, EDCF 등 공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의 공공선박(재난구조선 등) 건조 협력 등을 통해 중소조선사의 수주여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자재업체에는 추경 편성을 통해 2019 년 중 당초 계획된 30 건 보다 2 배 많은 60 여건의 국제인증과 벤더 등록을 지원해 수출 확대를 돕는다.

I . ISSUE & TREND

3. 미중 무역전쟁 공포 재부상, 금융시장 '요동'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공포가 재부상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위협 발언이 나온 이후 중국 증시와 위안화는 급락했다. 뉴욕과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렸다. 엔화급등, 유가 급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빠르게 확대됐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 인상을 단행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47P(0.25%) 내린 2,6438.4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17P(0.45%)하락한 2,932.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0.71P(0.50%) 내린 8,123.29에 장을 마감했다. 유럽 STOXX 600 지수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난항에 빠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주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다.

아시아에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58% 폭락했다. 중국 통화당국은 6일 증시개장 직전 중소은행에 비교적 낮은 지급준비율(최저 8%)을 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는 등 안정조치를 취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국의 경우 코스피 지수는 7일 오전 9시 45분 현재 2169.52로 전거래일 대비 26.80P 하락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753.53으로 전거래일 대비 8.29P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남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국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그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협상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재차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비관적으로 전개되면서 장기화할 경우 중국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오는 10일 실제로 관세율을 올리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제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무역전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들어 7.6% 상승해 여타 신흥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미중 협상 차질시 중국과의 경제 연계와 글로벌 경기 및 교역 둔화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크다. 또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성을 감안할 때 위안화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원화도 동반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I . ISSUE & TREND

이에 안 연구원은 "미중 무역협상 차질 우려에 따른 중국 주가 급락은 국내금융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협상 실패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트라우마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은 악재에 좀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킬튼은 "그동안 투자자들은 양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런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이는 세계경제 성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무역협상의 향방은 미중 양측의 입장이 불확실해 어느 한 가지로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미·중 양측이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역갈등 여파와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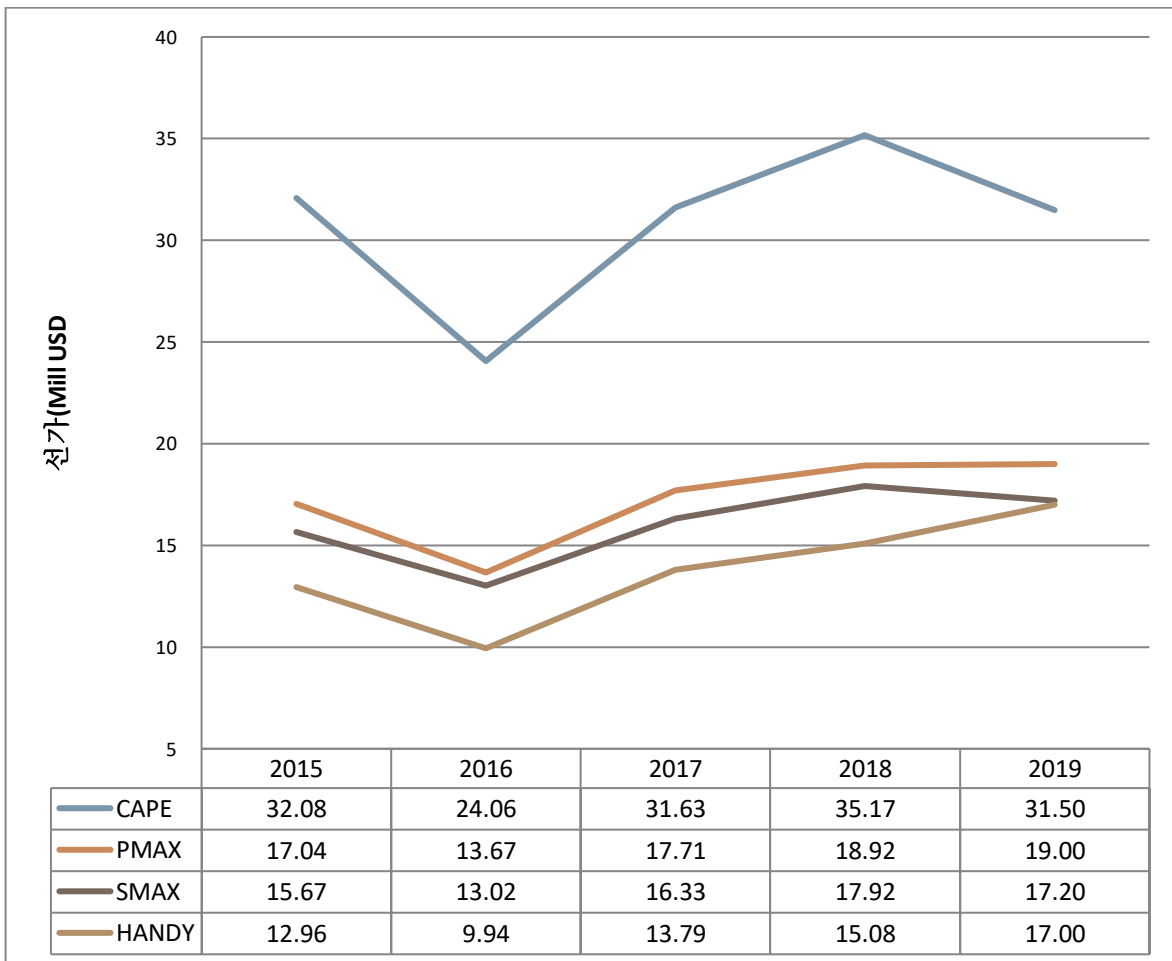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1.50
	-31.45%	-24.99%	31.43%	11.20%	-10.44%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20
	-36.04%	-16.91%	25.44%	9.69%	-4.02%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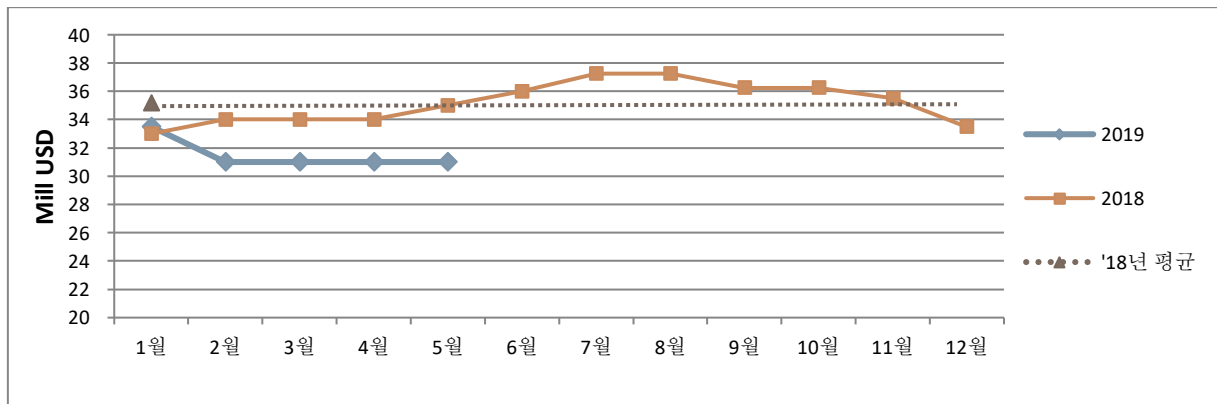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50
		전월대비	0.0%	-7.5%	0.0%	0.0%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11.4%		-10.4%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20
		전월대비	0.0%	-5.6%	0.0%	0.0%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4.0%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6.00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6.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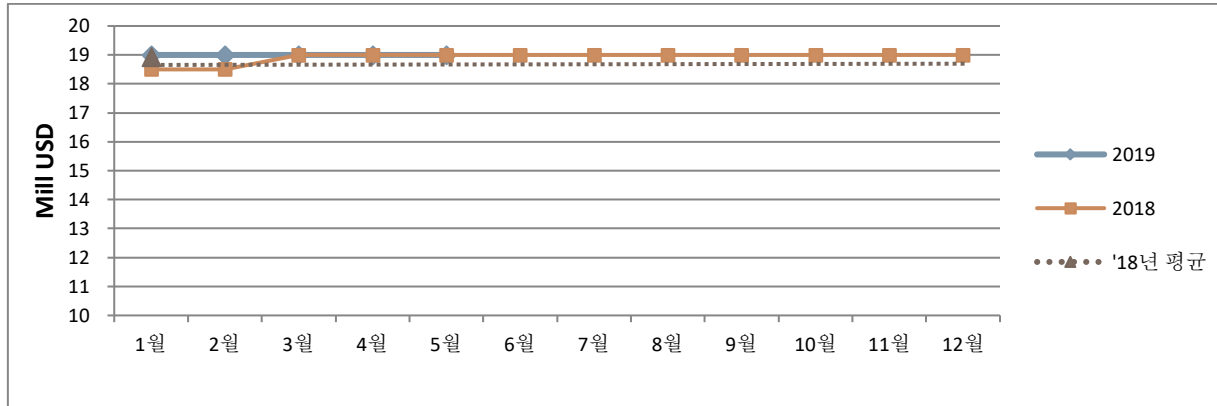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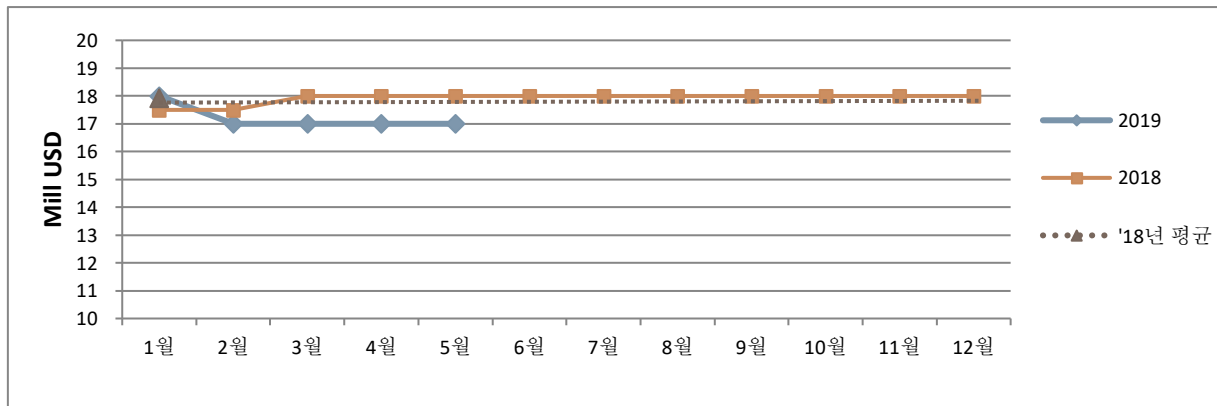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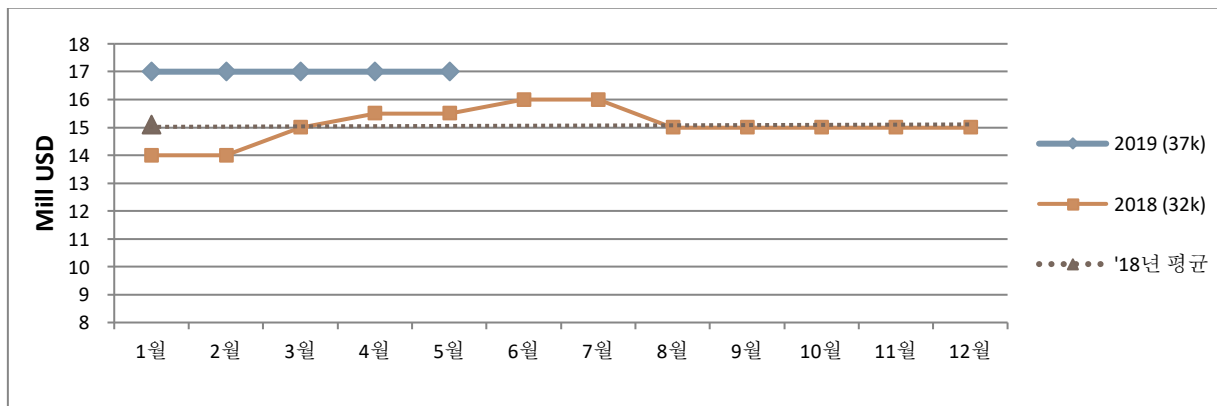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SHINYO ALLIANCE	176,269	2005	JAPAN	B&W		13	Undisclosed buyer
BC	NORD GALAXY	76,629	2006	JAPAN	B&W		10-10.5	Undisclosed buyer
BC	MEDI VITORIA	76,616	2004	JAPAN	B&W		7.7	Chinese buyer
BC	CITY OF DUBROVNIK	75,460	1995	DENM ARK	B&W		4.5	Chinese buyer (Jiuzhou Shipping), Ice Class 1C
BC	HAI QING	73,288	2000	JAPAN	SULZ		5.3	Chinese buyer, SS/DD due Sept '19
BC	GOLDEN RIVER	63,800	2019	CHINA	B&W		22.5	Chinese buyer
BC	GOLDEN BRIDGE	63,800	2019	CHINA	B&W		22.5	
BC	CONTI LARIMAR	57,000	2011	CHINA	B&W	C 4x30t	9	Undisclosed buyer, DD due
BC	SEPHORA	55,868	2007	JAPAN	B&W	C 4x25t	11	Norwegian buyer (Belships), 50/50 cash & shares
BC	ERIA COLOSSUS	55,411	2008	JAPAN	B&W	C 4x30.5t	12.6	Greek buyer, BWTS fitted
BC	THRASHER	53,389	2010	CHINA	B&W	C 4x35t	9.7	Indonesian buyer (Meratus)
BC	AGHIA SKEPI	52,466	2002	JAPAN	B&W	C 4x30t	7	Chinese buyer
BC	ARGYROULA	26,516	1997	JAPAN	MITSU	C 4x30.5t	4.4	Middle Easter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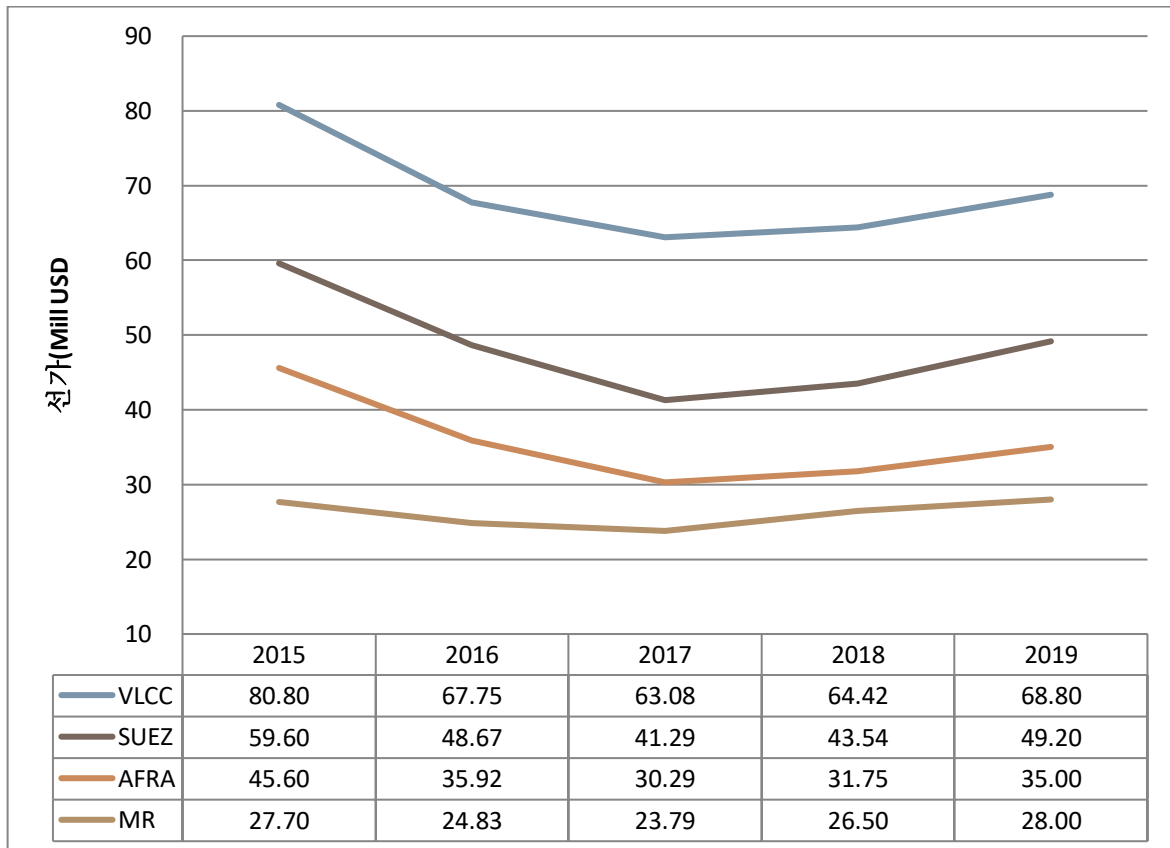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68.80
	9.04%	-16.15%	-6.89%	2.11%	6.80%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20
	17.32%	-18.34%	-15.15%	5.45%	13.00%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00
	17.83%	-21.24%	-15.66%	4.81%	10.24%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00
	2.97%	-10.35%	-4.19%	11.38%	5.66%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5
	-3.08%	10.45%	-10.78%	-5.20%	-6.12%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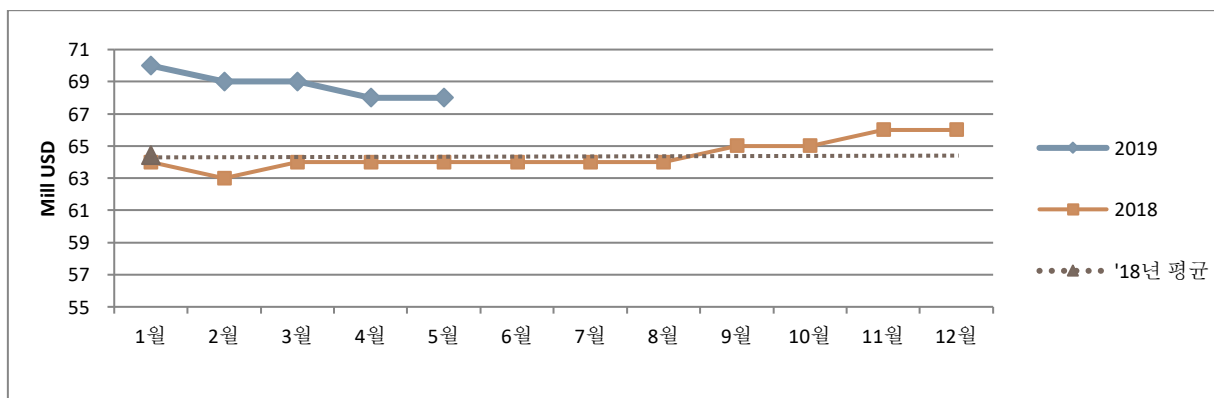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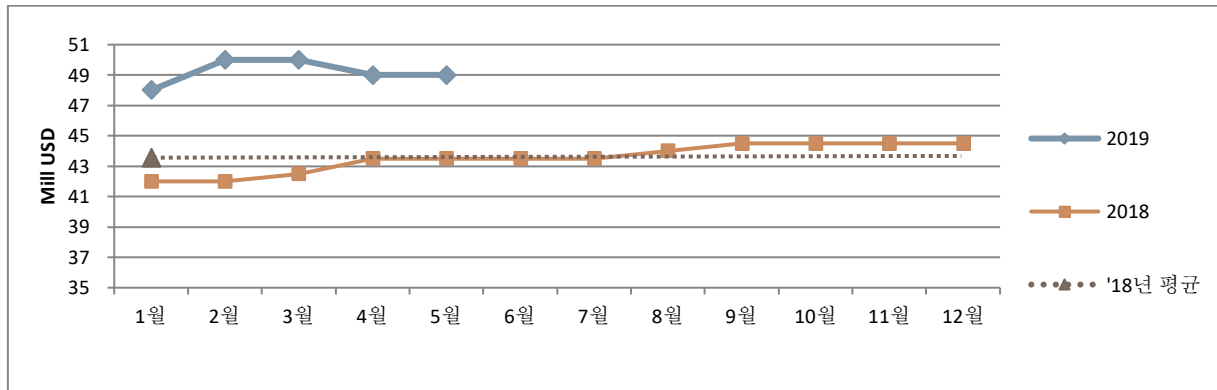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68.00		68.80
		전월대비	6.1%	-1.4%	0.0%	-1.4%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6.3%		6.8%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20
		전월대비	7.9%	4.2%	0.0%	-2.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3.0%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전월대비	6.1%	0.0%	0.0%	0.0%	0.0%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0.2%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8.00
		전월대비	1.8%	0.0%	0.0%	0.0%	0.0%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5.7%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5	
	전월대비	0.0%	2.3%	-2.2%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6.1%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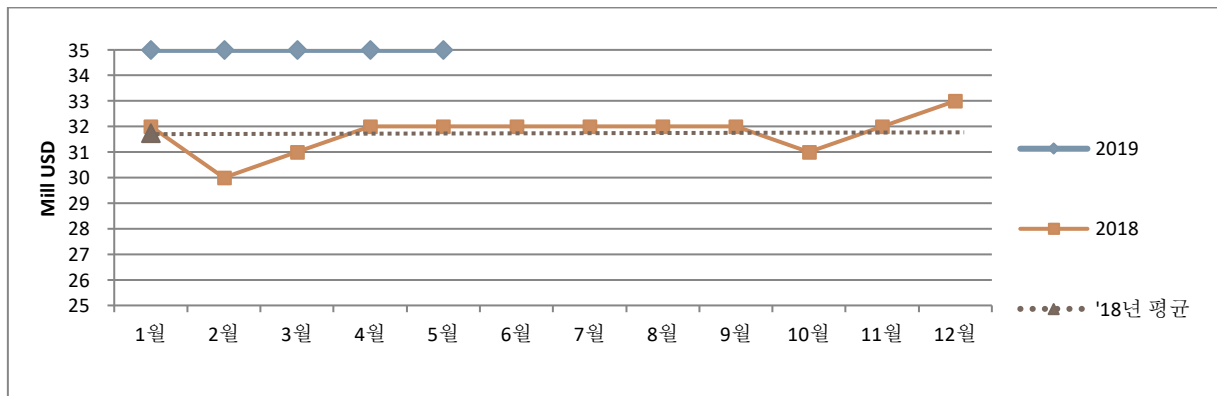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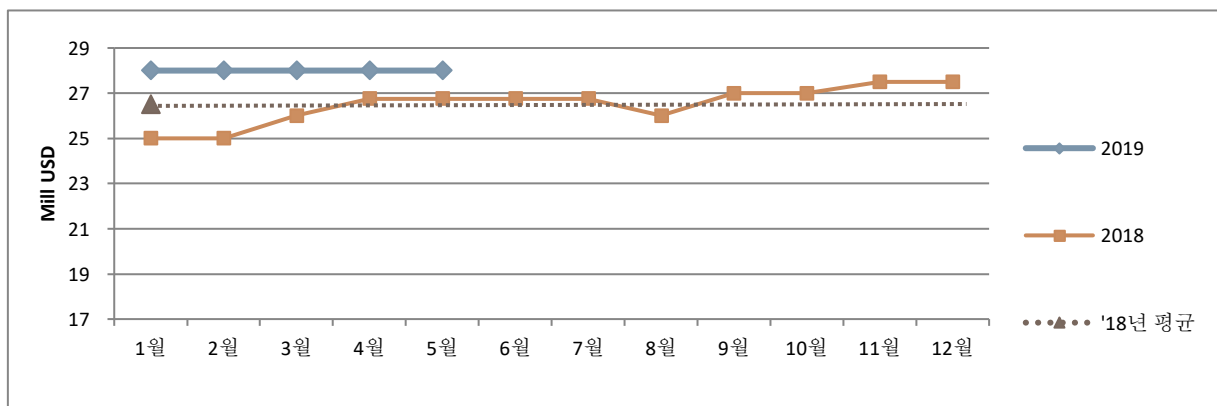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VIDA	299,097	2003	CHINA	B&W		26	U.A.E. buyer, ss/dd passed Mar '19
TANKER	NORDIC SPIRIT	151,294	2001	KOREA	B&W		9	undisclosed buyer, DD due
TANKER	UNIQUE EXPLORER	50,090	2010	JAPAN	B&W		17.45	Singaporean buyer (Pallonji)
OIL /CHEM	CHEMBULK GIBRALTAR (stst)	20,601	2001	JAPAN	MITSU		6.8	Vietnamese buyer
OIL /CHEM	NJORD CLEAR (stst)	16,225	2001	ITALY	WART	2&3	6	Chinese buyer
OIL /CHEM	BOW ASIA (stst)	9,900	2004	JAPAN	B&W		13	Singaporean buyer (Wilmar)
OIL /CHEM	BOW SINGAPORE (stst)	9,888	2004	JAPAN	B&W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GUANG DONG BRIDGE	71,283	2006	KOREA	B&W	5642	TEU	13	German buyer
CONT	BALTIMORE BRIDGE	52,184	2010	KOREA	WART	4432	TEU	10.1	S. Korean buyer
CONT	ASTORIA BRIDGE	51,314	2009	KOREA	WART	4228	TEU	9.1	S. Korean buyer
CONT	AMBASSADOR BRIDGE	51,314	2009	KOREA	WART	4228	TEU	9.1	U.K buyers (Borealis Maritime)
MPP	THORCO AFRICA (heavylifter)	12,845	2010	JAPAN	B&W			7.8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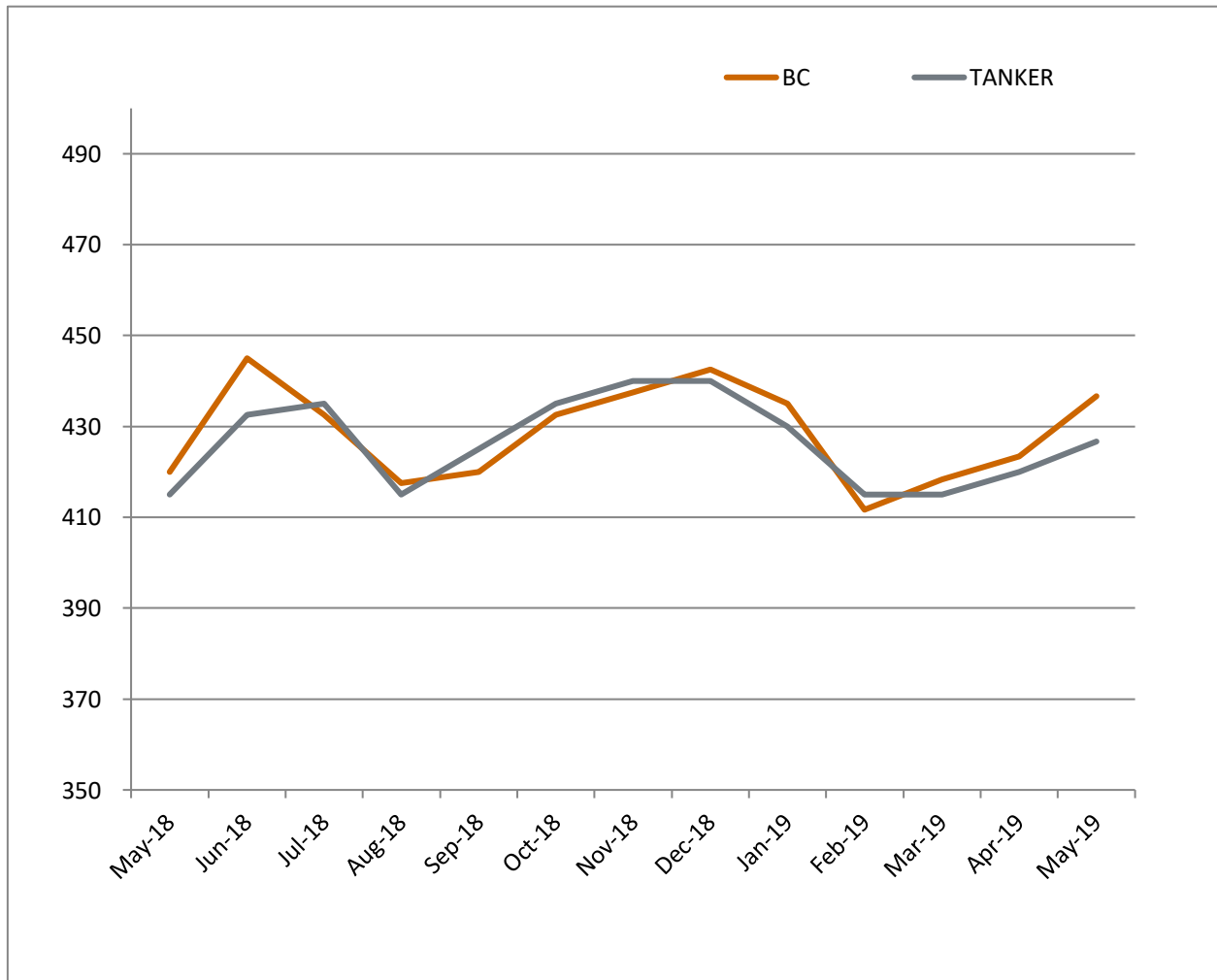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5 월	2019 년 5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20.67	-2.8%	432.50	426.67	0.0%	-1.3%
BC	370.83	38.5%	440.63	18.8%	425.33	-3.5%	445.00	436.67	0.0%	-1.9%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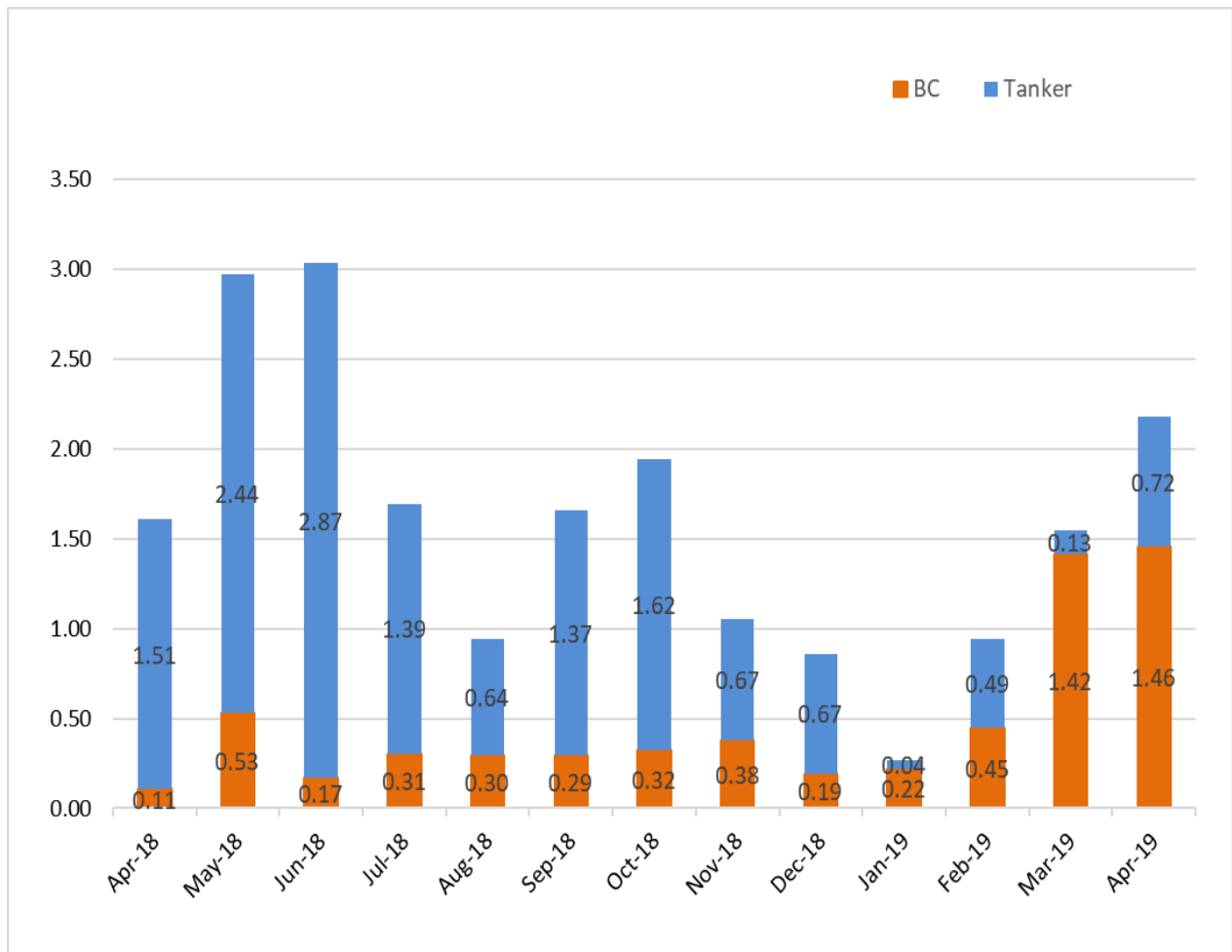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4 월		2019 년 4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1.38	6.6%	29	14.9%	1.51	18	0.72	-52.0%	10	-44.4%
BC	4.20	112	3.54	84.4%	38	33.9%	0.11	8	1.46	1,287.6%	15	87.5%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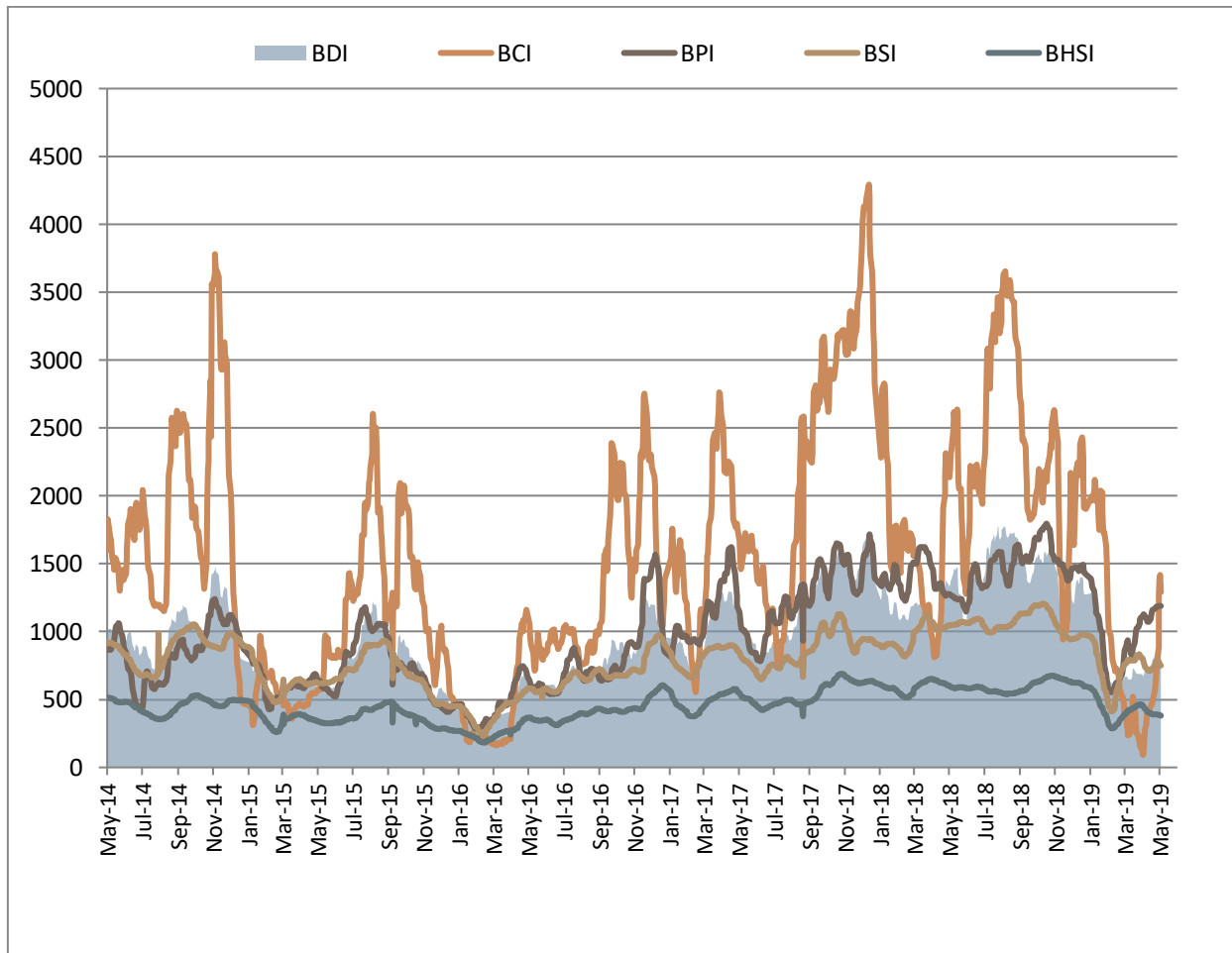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NAVIOS EQUATOR PROSPER	171,191	-	2000	JAPAN	B&W	437.5	AS IS Singapore
CONT	BAO CHENG	20,463	7,407	2002	CHINA	B&W	453	BANGLADESH
CONT	TANTO HAWARI	4,584	1,892	1985	JAPAN	AKASAKA	405	BANGLADESH
PCC	HEIJIN	14,366	11,018	1989	JAPAN	MITSU	426	INDIA, green recycling
TANKER	PINE	4,997	1,816	1982	JAPAN	HANSH	420	BANGLADESH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5-03	2019-04-26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985	889	▲96.00	1774	290
BCI	1290	783	▲507.00	4293	92
BPI	1190	1186	▲4.00	1796	282
BSI	752	780	▼-28.00	1207	243
BHSI	382	389	▼-7.00	69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35.00	▼-12.50	415.00	▼-18.50	430.00	▼-18.00
IFO180	470.50	▼-9.50	462.50	▼-4.50	481.00	▼-15.50
MGO	623.50	▼-8.00	614.00	▼-7.00	650.50	▲3.50
LSMGO	629.00	▼-7.50	609.00	▼-1.50	-	-

❖기준일 : 5 월 3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5-03	2019-04-26	CHANGE
미국 달러	1163.90	1158.70	▲5.20
일본 엔(100)	1043.72	1038.77	▲4.95
유로	1300.66	1290.44	▲10.22
중국 위안	172.75	171.88	▲0.87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 일코노미&미코노미

■ 일코노미: 1+Economy, '1인 가구'에 '경제'를 뜻하는 영단어 이코노미(Economy)가 합성된 신조어

미코노미: Me+Economy, '내'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경제활동을 뜻하는 신조어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먹기)', '혼놀(혼자놀이)' 등이 보편화되는 등 일코노미, 미코노미가 부상하고 있다. 예컨대 1인 가구를 위한 먹거리(반조리식품과 편의점업계)부터 가전(소형 가전), 가구(조립식 가구), 빌딩(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주택)에까지 1인 가구의 영향력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관련기사 '新 소비 트렌드, 나를 위한 소비 '미코노미(Meconomy)'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솔로 이코노미, 일코노미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재치있는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러한 형태의 소비에서 '내'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새로운 신조어, '미코노미'가 등장했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 '1인 미디어로 시작하는 Meconomy의 진화'에 따르면 '나(Me)'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미코노미는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올로(YOLO)', '소확행' 등의 트렌드가 부상함에 따라 '내가 생산하는 경제활동'에서 '나'를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미코노미 형태의 경제 활동은 특히 개인 블로그, 팟캐스트,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에서 가장 대두된다. 이는 신문, 방송 등 전통적 매체보다 스마트폰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일상에서 더 필요한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직접 유통하고 팔로워와 소통하는 SNS 스타, 유명인 등을 지칭하는 '소셜 인플루언서'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친밀감이 증폭하며 이를 활용한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도 높은 수익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미코노미를 행하는 올로족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을 아우르는 경제 전반에서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이 등장하고 있다.

[출처: 산업일보, 2018.12.27]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과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